

## 교회관이 먼저 치료되어야 합니다

- 장병두 목사 / 2001. 9. 1-

요즘 기독교 서점가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기독교 서점에서는 지난 7월 둘째주에는 베스트 셀러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책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가 그 책의 제목인데, 이는 사실 심각한 신학적 모순을 가진 제목입니다. 과연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 낳은 교회가 죽어야, 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 책의 겉장을 넘기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문구가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글입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도 "내가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뿐이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요즘 기독교 서점가에서 베스트 셀러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성도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까지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다"는 식의 신학적 전제를 갖게되지는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식이하의 현상만을 두고 볼 때는 우리 안에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사회 안에는 이 책에 언급된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깊이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자연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말이나,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만 천당에 가고,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의롭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지옥에 간다니! 이따위 상식이하의 유치한 기독교를 누가 믿으려고 할 것인가"라든가, "선한 유교인과 의로운 불교 신자도 하늘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을 접하면서 과연 이 책이 추구하는 구원이란 무엇이며, 그토록 비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저는 깊이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부패를 걱정한다고 쓰여진 책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 받은 교회에 대해 깊은 불신과 절망감만 안겨줄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요즘 이런 류의 책들이 서점가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오래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절망스럽게 몰아대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공동체를 진정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요 소금" 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변화된 교회 공동체안에서 경험해 본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토록 혼동하며, 낙심하고 냉소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봐야 다 똑같다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중심에 변화가 없고, 10년 전에 넘어지던 일로 똑같이 죄에 빠지고 똑같은 일로 화내며 침체됩니까? 그 사람에게 교회관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영혼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세상의 악의 문제가 사실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같이 기질과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들이 있음을 보지 못하며, 그 부패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깊이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이며 스스로 고칠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닐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늘 자신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뜻을 위해서는 몇사람쯤 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집을 한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 자신이 진정 복음으로 변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고 치료되고 자존감이 회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영혼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저마다 비판과 정죄의 목소리가 높습니까? 교회안에서 생명을 낳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고 고집스런 자인지 절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광야를 40년이나 걸어도 그 중심의 정욕과 열등감과 불신앙이 치료되지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했던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우리안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것처럼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기회가 없어서 그럴지 다 무서운 욕망의 폭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신앙성장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정말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건강한 교회관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부활승천 하신 이후, 성령을 교회위에 부으심으로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영광스런 직분을 이땅의 교회들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누가 말한 것처럼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습니다. 왕궁에서 신데렐라를 애타게 찾는 왕자님이 계신데, 정작 신데렐라는 그만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유리구두 한 짝만을 만지작거리며, 변함없이 먹고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공동체란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이 만나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등록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신화,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학벌이 있고 경험과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말씀이 이끄는 데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았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혼을 위해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값 주고 사신 이 교회만이 우리의 불가능한 절망을 고치며 치료하고 회복시켜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진원지인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